



공기화

토요일 오후에도 이기대 해변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이 많았다. 앞에 가는 주부들 중에 “아 부산에서 태종대 길만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부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산책길이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걸 들으니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멀리 광주에서 온 손님들도 이 길을

걸으며 감탄하는 것을 보니 이기대의 해안산책로는 이미 전국의 명소로 알려져 있나보다.

오륙도를 바라보며 해파랑공원의 유채꽃과 동백꽃 향기를 맡으며 천천히 걸었다. 곳곳에 있는 전망대가 굳이 없어도 잠시 쉬면서 바다를 쳐다보는 모든 곳이 전망대였다. 숲 사이를 살펴보니 경사가 아주 심한 남퍼러지에 갯보리밭나무와 상록수들이 위태롭게 서 있다가 숲 사이에 나타나는 이름 모를 갯바위들이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농바위에 도착하니, 보는 위치마다 느낌이 달라 농처럼도, 머리에 짐을 인 어머니와 같이 보이기도 한다. 바위 사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어느 농부가 안빈낙도하며 이

바닷가 골짜기에서 농사를 지었던 소만물상이 있는 밭밭새가 이름만 해도 반팔만치 정감이 간다. 어허라! 왜 이정표에 있는 차마바위가 안내판이 없는지 아쉽다. 더구나 남굴로 알려진 곳에 버티고 서 있는 군초소가 이기대해안산책로의 맥을 끊은 것이 욕에 티이다.

가파른 계단이 있는 스텔드에 아무도 머물지 않는다. 이곳에 숲이라든 조성되어 있다면, 산책하던 이들이 앉아서 쉬며 해운대의 정경을 만끽하다가 동생말 쪽으로 발을 옮기면 금상첨화이리라.

상징조형을 세워야

어울마당에 숲 조성

숲앞에 이는 바위가 파도소리와 어울리는 송림을 지나면 어울마당이 나온다. 이곳에 오면 쌓인 갈증을 씻어줄만한 편의시설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또 아쉬운 점은 어울마당 공간에 야간공연장이면 모를까, 한낮에 펄펄이 앉아 쉬는

그런데 흔히들 조금 아쉬울 경우 2% 모자란다고 하나, 이기대를 더 신비로운 전설에 마냥 두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통발자국 장비위와 이기대 각자(刻字)가 있는 곳에 무심한 시비(詩碑)만 줄지어 서있으니 웬지 이기대를 대표하는 조형물이 없어 유감이 바로 이곳의 부족한 단면이다.

이곳이 아직도 대중교통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명 재정비에 서두르자

그리고 아름다운 절경과 기암절벽에 제대로 이름조차 없으며 기존의 명소의 지명이 재정비되었으면 한다.

우람하게 보였던 장자산의 커다란 소나무(우산소나무)가 멀리서도 위엄 있게 보였는데 언제 우리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하루의 삶이 매우 빠르게 살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옛 것이 자주 사라지고 묻혀간다.

이기대에 대한 견해에 대해 남구인들의 지혜를 모아야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기대에 대하여 좀 더 연구를 하여 두 의기(義妓)에 대한 애국충절의 공로를 치하하는 남구인들의 의지가 실현되리라 믿는다.

부산교육대 교수·수필가



<184>



민을 것은 민어야

요즘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 아니,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들어 왔자 그게 그거고 딱 뭇 게 없으며, 손해 보는 것이 많다고 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말도 꺼내지 말란다.

얼마나 당혹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나. 수고는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 몇몇 때문에 다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남의 말을 들어 손해 볼 것은 별로 없다.

어느날, 의원 편작(編鵲)이 채(蔡)나라 임금을 만나 지금 병이 들었다고 하자 임금은 박장대소하며 비웃었다.

“바보 같은 소리! 짐은 병이 없다. 이렇게 팔팔하지 않느냐? 보다시라!”

그래도 편작은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병환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짐이 어디가 나쁜가?”

“지금은 병이 피부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속히 치료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화를 발끈 내었다.

“원래 의원이란 사람은 터무니 없는 소리를 잘 해, 있지도 않는 병을 있다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 병을 고쳤다 하여 공을 세우려 하지 않나. 통 믿을 수 없단

말이야.”

열흘 뒤, 편작이 다시 찾아와 말했다.

“임금님의 병환은 벌써 근육까지 변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병은 점점 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다시 열흘 뒤, 편작이 임금께 말했다.

“병은 벌써 내장까지 변해 있습니다.”

“이 늙은이가 갈수록 못하는 말이 없구려. 짐이 중병 환자라고?”

임금은 노발대발 했다. 다시 열

흘 뒤, 편작은 임금을 불러 갔다가 그대로 되돌아 나와서 도망쳤다. 이상하게 생각한 임금이 신하에게 “달라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오너라.” 하고 말했다.

편작의 말은 이러했다.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찔림으로, 근육에 있을 때는 침으로, 또 내장까지 변했을 때는 약으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뱃속 깊이 스며든 병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섯 뒤 임금은 죽고 말았다. 병은 가벼울 때 손을 써야 쉽게 고칠 수 있다. 병뿐만이 아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후회한들 그때는 하늘도 어찌 할 수 없다.

조금 있다가, 내일, 하지 말고 당장 실천하는 사람이 현명하지 않을까.

번역문학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가로등 소등 시간 앞당겨야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하러 6시 30분경에 나간다.

그런데 매번 나갈 때마다 아파트의 가로등 불이 켜져 있어 요즘에 나지 절약을 벌이고 있는데에 역행하는 것 같아 씁스레까지 짜이 없다.

지금은 서서히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가 5시 20분경에 떠서 이 시간이면 뒤편데도 가로등 불이 그대로 켜져 있어 전력낭비가 아닌가. 따라서 아파트 경비실이나 관리실

에서는 아침에 꼭 바깥 가로등을 점검해 끄지 않은 가로등에 대해서는 소등조치를 취해 줘야 한다. 우리 모두 전기를 아껴써서 전기요금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우정렬(woorj@yah00.co.kr)

옛 경찰서 부지 활용을

매번 경성대에서 대남로터리 방향으로 차를 몰다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옛 경찰서 건물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는 듯하다. 이런 좋은

위치에 또한 좋은 건물이 그냥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이곳에 지역민을 위한 문화센터나 교육센터가 들어서면 어떨까 싶다. 교통편도 비교적 양호하고 평지에서 여러모로 좋을 듯하다. 예전 군수사부지에도 대규모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는 데 이곳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적지 않을 것이다.

여기와 이웃하고 있는 이곳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 자기 개발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당국에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

김미진(대연2동)

서틀버스 안내판 설치하자

남구 주민의 소원이었던 남구국민체육센터가 지난해 3월 백운포체육공원에 들어섰다.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곳은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남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센터가 우리 모두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시설로 한 단계 올라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CCTV설치 노력

대남로터리에서 광안대교 방면으로 내려가다가, 대연비치 아파트 맞은편에서, 오른쪽으로(101동 담을 끼고) 부경대 후문과 남천중학교 가는 이면도로에 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대연3동 김명호씨의 건의에 답변 드립니다.

평소 구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부경대후문과 남천중학교 이면도로 구간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우руг구에서 불법주차 단속반을 주·야간 운용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

으나 현실적으로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지속적인 순찰 및 주차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정식 감시카메라(CCTV) 설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는 예산 사정상 어려우며 추후 예산이 반영될 시 설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정찬운>

우량도서관 도서관 이용을

구청 등 공공서와 공공이용시설 등에 우량도서관을 비치하자는 문현1동 우도령씨의 건의에 답변드립니다. 건의하신 민원실 도서비치와 관련하여 일반 민원의 경우 평균 1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대기시간에 길이는 책 읽기는 무리라 판단됩니다.

많은 관공서나 은행에서도 기다리는 고객들의 시간을 메워주기 위해 중랑감 있는 책 보다는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단상에 빠질 수 있는 좋은 글이 수록된 교양 잡지나 신문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교양도서관 우량도서관은 도서관에 비치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여겨집니다.

책 읽기를 원하신다면 다양한 도서관 비치된 가까운 도서관에 본인 이 원하는 책을 대출해 정독을 하시거나 책을 항상 휴대하며 독서를 일 상화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구도서관·이동언>

서기 위해서는 '서틀버스 타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서틀버스 타는 곳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을 정류소마다 설치해 놓고 있다.

우리 남구도 '서틀버스 타는 곳' 안내판을 설치해 체육센터를 홍보도 하고 처음 이용하는 주민에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체육시설로 발전하길 바란다.

박대곤(대연3동)

■ 나의 생각

걷기 대회 자주 개최하자



박능숙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오륙도와 이기대는 우리 남구가 가진 보물이다. 지난 달 23일, 제20회 오륙도사랑 걷기 대회가 그 일대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기대 순환도로는 가족끼리 걷기 좋은 코스다. 마침 화창한 날씨에 흠뻑 땀도, 덥지도 않은 날씨가 걷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쌍둥이 유모차에 연년생 아이를 나란히 태우고 걸던 용호동의 정 모 씨(34살, 용호동), 지루한 추위 뒤에 맞이한 봄의 잔치라 움츠려 있던 마음과 몸에서 활기를 느낀다고 했다. 토요일 오후라 직장하고 학교에서 모처럼 가족이 모여 오순도순 걷는 모습도 좋았다.

이기대는 여럿이 마음을 열고 걷기에 좋은 코스다. 또한 그 길을 걸으면 눈과 마음이 즐겁다. 눈길 닿는 곳마다 어린 일사귀와 아기자기한 예쁜 화단이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올가을이면 붉게 물들 단풍나무도 아직은 연초록이다. 나무에서 한 번, 땅에 떨어져 한 번, 두 번 꽃을 피운다는 동백도 눈길을 끌었다. 파란 하늘을 그대로 닮은 바다는 하나의 커다란 에메랄드였다.

내년을 기약하며 난분 분 떨어지는 하얀 벚꽃 잎을 머리와 어깨로 맞으며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가 다정해 보였다. 나이와 세대를 초월해서 걸어가자는 모습은 바라보는 이들마저 흐트하

게 했다. 그 길을 어깨를 걸고 나란히 걸어가는 연인이나 친구, 가족이나 이웃의 마음이 흥겹지 않을 수 없었다. 걸으면서 마음에 묵었던 찌꺼기도 털어내었다. 건강과 우애는 덤이었다.

전경아머니와 팔짱을 끼고 걷는 공무원 최 모 씨(40살, 대연동), 마음만 있을 뿐 시간에 쫓기다 보니 어머니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운한 마음을 털 수 있게 돼 기쁘다.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단체장도 구민들과 어울려 답소도 나누고 체력 증진 및 단합을 도모하며 완보했다. 그야말로 민과관이 어울리는 한마당 잔치였다. 이런 잔치가 많아지다 보면 민은 관을, 관은 민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한 발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될 것이다.

완주한 구민에게 행운권 추첨의 기회도 주어졌다. 축하공연이 이어졌는데 댄스퍼레이드와 숨겨진 멋진 노래 솜씨도 수준급이었다. 줄넘기, 세제, 커피포트, 다리미, 드림세탁기와 자전거 10대, 디지털카메라 등 푸짐한 경품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다.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낫고, 좋은 음식보다 걷는 것이 더 낫다고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밝히고 있다. 걷기가 그 어떤 것보다 몸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쯤은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오륙도사랑 한마음 걷기대회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다. 행정기관에서 이런 행사를 자주 개최하게 되면 주민의 건강은 물론 화합은 당연하다 하겠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지 않던가. 수필가·기자

■ 제4회 남구 문화원 큰잔치 참석기

아저씨 아줌마 열정이 남구문화 살찌운다

얼마 전 열린 제4회 남구문화원 큰잔치 행사는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다 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문화원의 가야금교실 등 8개 공연단이 출연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공연장을 찾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무대에 오른 이들 대부분은 중·노년층으로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을 계발하고 여가를 즐기고 있는 이른바 멋쟁이 아줌마, 아저씨들이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게 날렵하진 않지만 무대에 오른 이들 하나하나의 얼굴에는 20대 못지않은 배움의 열정과 패기로 넘쳐났다.

다도예절 공연과 한국무용 등 우리가 락과 춤을 맛갈스럽게 연출해 내는 춤사위에서 관중들과 오십견의 상흔(?)은 찾아 볼 수 없었고 가야금 병창, 오카리나 공연 등은 소녀의 감성을 일깨우는 그 무엇인가를 느끼게 했다.

한마디로 아줌마 아저씨의 열정이 남구문화를 살찌우고 있었다.

300여 관객들은 이번 모습에 박수와 환호로 답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멋들어지게 펼치는 문화공연에 감동받고

아내와 친구의 구성진 가락에 흠뻑 취하는 모습은 이날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남구청장과 시·구의원 등도 행사장을 찾아 격려하는 모습도 좋았다. 무엇보다 성재영 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들은 자리를 뜰까지 지키며 응원하는 모습에서 남구문화 발전을 위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올해 처음 무대로 삼은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역시 이날 행사의 성공적인 계

회에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출연자와 관객이 하나 되기에 충분했으며 이곳이 남구의 또 다른 문화공간임을 확인해 줬다.

하나 아쉬운 것은 남구문화원의 각종 행사와 강좌가 자체 건물이 없어 축소되거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문화원 건물이 지어져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김옥련 기자



남구문화원 수강생들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제4회 남구문화원 큰잔치 행사가 많은 관람객들의 환호 속에 열렸다.